

“서정적이고 관능적... 한국문학 희망을 봤다”

■ 맨부커상 한강의 문학세계
주제 보편성·문제 흡입력 탁월
심사위원·언론 찬사 이어져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큰 영향

16일(현지시간) 영국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찬사가 이어졌다.

맨부커상심사위원 5명 전원은 빅토리아 앤드 엘리자베스 박물관에서 만장일치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작품으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은 말은 영국 인디펜던트 문학 선임기자인 보이드 톰킨의 선정 이유는 ‘채식주의자’가 지난 소설적 성취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보이드 톰킨 기자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수상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소설”이라며 “정교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섬세한 아름다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를 보여줬다”는 찬사를 보냈다.

또한 그는 “‘채식주의자’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집과 가족, 사회를 묶는 모든 관습을 거부하는 과정을 그린다. 서정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스타일의 이 소설은 독자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강은 수상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번역자 데버러 스미스씨에게 공로를 돌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께 감사 표현한다”고 했다. 번역가인 데버러 스미스씨는 “한강의 작품을 번역한 것은 놀라운 특권이자 그녀를 친구로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채식주의자’는 폭력적인 삶을 거부하기 위해 육식을 단절하고, 그로인해 점차 죽음에 다가가는 한 여성을 그리고 있다. 해외에서 번역 출간되자마자 인기를 끌 만큼, 주제의 보편성과 문체의 흡입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뉴욕 타임스는 “조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17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서점에서 한 독자가 기판대에 진열된 한강의 소설을 읽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현실주의에 뿌리를 둔 폭력적이고 관능적인 소설”이라고 평했으며 미국의 출판저널 퍼블리셔스 위클리지는 ‘채식주의자’를 올해 가장 기대되는 소설로 꼽기도 했다.

또한 2015년 영국에서 출간 당시 런던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가 집계하는 베스트셀러 리스트 2위에 올랐고, 2016년 1월에는 영국 포일스(Foyles)서점에서 소설분야 톱10에서 1위에 올랐다.

평론가인 조선대 국문과 김형중 교수는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한강의 다른 소설들도 매우 시적이면서도 ‘지독한’ 면이 있다. 작가는 하나의 주제를 대충 처리하지 않고 갈 데까지 극단으로 밀고 간다. 그런 측면에서 한강은 전성 예술가다”라고 평한다.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은 향후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국독자들은 대부분 한국문학을 사회문제나 남북문제를 사실적인 기법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생각했지만, 한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을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 작가의 소설은 치밀한 구성, 섬세한 감수성, 울림 있는 주제의식이 절묘하게 교차되어 독특한 아우라를 발한다. 문단 안팎에서는 장인정신에 근거한 글쓰기가 한강을 차세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평가다.

수상에 힘입어 ‘채식주의자’의 판매도 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의 1차 후보작(13편)에

포함된 이래 4월 16일 최종 후보작(6편)에 올라 수상의 기대감을 높여오면서 4만 여부가 추가 판매됐다. 출판사 창비는 출간 9년 만에 국내소설 베스트셀러 목록에 다시 오르는 등 가파른 매출상승 추이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작이며 작가가 가장 애정을 갖는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창비 2014)의 판매 역시 동반 상승해 올해만 2만부에 가까운 판매현황을 보이고 있다.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한강은 1994년 서울신문에서 ‘붉은 땀’으로 등단했다. 등단 이후 제25회 한국소설문학상, 제29회 이상문학상, 제13회 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 창작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2010년 6월 초였던 걸로 기억된다. 그때도 요즘처럼 따뜻하고 청명한 날씨가였다. 주한 독일대사관 초청으로 함부르크, 뮌헨, 베를린 등 3개 도시를 방문했던 기자는 브란덴부르크의 홀로코스트(대학살) 기념관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규모와 내용도 놀라웠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하틀러의 집무실이 자리했던 곳에 세워졌다. 설계를 맡은 유대인 출신의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나치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

코스트 기념관의 ‘충격’이 되살아난 건 얼마 전 관람한 영화 ‘사울의 아들’ 때문이었다. 영화는 아우슈비치 시체소각장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사체처리반(존더코만도)인 주인공 ‘사울’이 수백 여명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죽음의 현장을 누비는 처절한 모습을 영급에 담았다. 아들의 시신을 소각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온전히 수습해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다. 영화 속 사울이 밟고 지나간 ‘피 묻은 자리’들은 ‘공백의 기억’의 어디쯤인가에 이르러라.

다시 오월이다. 매년 이맘때면 5·18의 참상과 희생자의 넋을 기리

‘빨간 의자’

를 추모하기 위해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를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연출했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몸과 마음으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이다.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유품들을 전시해 놓은 홀로코스트 타워와 커다란 관을 연상시키는 2711개의 콘크리트 비석은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이 가운데 바닥에 전시된 이스라엘 현대미술가 메나셰 카디쉬만의 ‘공백의 기억’은 눈이 아닌 귀로 먼저 느끼게 되는 작품이었다. 입을 벌린 사람 얼굴 형상의 원형 강철 덩어리들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비명 같은 차가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특히 축구장 두 개 크기의 거대한 면적에 세워진 2711개의 비석들은 독일이 세운, 일종의 자기반성적인 추모비다. ‘살해당한 유럽의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로 명명된 이 비석들 사이를 지나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6년전 홀로

추모행사가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지난 12일부터 광주 지하철 문화전당 옆 5·18 기념 홍보관에서 열리고 있는 ‘빨간 의자 프로젝트’에 마음이 끌린다. 5·18 기념재단과 작가 추홍 씨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빨간 의자’는 5월 주간을 맞아 매일 5시18분부터 약 30분 동안 누구나 빨간 의자에 앉아 ‘그날’의 아름다운 경험담을 들려주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프로젝트다. 아픈 기억도 많지만 공유하고 싶은 훈훈한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이다. 무료로 시위 차랑에게 기름을 넣었던 정영수 아저씨, 목마른 학생들에게 음료수 한 병을 선택 내주었던 수퍼 아줌마...

오는 29일까지 이곳을 방문하면 지난 2014년 추홍 씨가 5월 항쟁 당시 미담사태의 주인공들을 만나 인터뷰한 음성과 지역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연주도 만날 수 있다.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살아남은 자의 의무다. 빨간 의자는 지금 당상을 기다리고 있다.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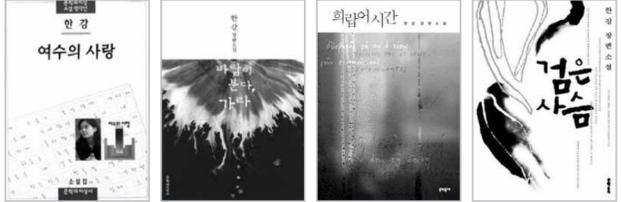
‘여수의 사랑’ 등 한강의 작품들 다시 주목

▲여수의 사랑
한강 첫 소설집. 표제작 ‘여수의 사랑’은 여수발 기차에 실려와 서울역에 버려진 자흔과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데리고 동만 자살을 시도했던 정선,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인규, 백지 같은 여동생을 버리고 고향에서 도망친 정환이 등장한다. 떠나고, 버리고, 방황하고, 추락하고,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인물들을 통해 ‘살아 있음’을 일깨운다. 〈문학고지성사〉

▲바람이 분다, 가라
축망 받던 한 여자가 화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중심으로, 각자가 믿는 진실을 증명

하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한강의 네 번째 장편소설로, 제13회 동리문학상을 받았다. 새벽 미시령 고개에서 40년이란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두 차례 사고, 그리고 거기에 얽힌 인물들의 내밀한 사연과 진실이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펼쳐진다. 〈문학고지성사〉

▲희랍어 시간
열일곱 살 겨울, 여자는 어떤 원인이나 전조 없이 말을 잃지만 한 개의 불어 단어를 통해 다시 입을 움직인다. 시간이 흘러, 이 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다시 말을 잃어버린 여자는 희랍어를 배운다. 한



편, 희랍어를 가르치는 남자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는 수강생 중 말을 하지 않는 여자를 주의 깊게 지켜보지만 단단한 침묵에 두려움을 느낀다. 〈문학동네〉

▲검은 사슴
한강의 첫 장편소설로, 한낱 도심 횡단 보도를 알몸으로 달리고 기억상실증까지

걸린 임의선과 강원도 오지를 헤매며 그녀를 찾는 두 남자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개인적 상처와 시대적 상처가 만나는 과거 한 지점으로 파고 들어간다. 치밀한 디테일, 비약이나 단절 없는 서사, 서로 공명하는 삽화들이 매력적인 1990년대 문학 대표 성과물로 꼽힌다. 〈문학동네〉

광주문화재단, 4차 광주학콜로키움 개최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19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4차 광주학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박준규 전 광주시문화재단전문위원이 ‘광주의 불교유

적’을 통해 본 불교문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 전 위원은 광주 사찰과 석탑, 부도 등 불교유적을 통해 활발했던 불교문화를 설명한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정갈한 전통음식 그리고 뛰어난 도시에서 100% 키워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 ▶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